

취득세 줄고 복지 늘고 내년 광주시 재정 '최악'

부동산 침체로 세수 1055억 줄어
복지예산은 2385억원 확대 예상
정부, 지역개발공채 발행도 축소
국비 매칭 사업 부담금 편성 못해

부동산 경기 침체 영향 등으로 취득세 수입이 크게 줄면서 내년도 광주시의 재정 여건이 최악의 상황에 처할 것으로 전망됐다. 여기에 내년도 사회 복지 분야 예산이 전년 대비 9.1%가 증가하고, 정부가 내년부터 의무매출채권(지역개발공채) 발행까지 축소하고 나서면서 광주시의 재정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열악한 재정 여건에 따라 광주시는 내년도 국비 매칭 사업에 따른 일부 시비 부담금을 내년도 본 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내년도 1차 추가경정(추경) 예산으로 미루면서, 국비 매칭 사업 추진도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8일 내놓은 내년도 광주시 세입·세출 예산안 및 자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광주시의 자체 수입인 지방세 증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취득세

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전년 대비 16.1%가 줄어든 것으로 예상됐다. 액수로는 1055억원에 이른다.

이 같은 취득세 감소는 사상 초유의 일로, 자체 세입 확보에 적신호가 켜진 셈이다.

또한, 그동안 낮은 이자의 의무매출 채권(지역개발공채) 발행 등을 통해 매년 800억원의 지역개발기금을 조성해 활용했지만, 정부가 내년부터 의무매출 채권 대상을 축소하기로 해 연간 20%(17억원) 정도의 기금 수입 감소도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내년 세출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광주시 내년도 전체 예산 중 39.44%를 차지하면서 전년 대비 9.1%인 2385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긴 하지만, 예산 증가율을 크게 상회하면서 광주시 재정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광주시 출자·출연 법인에 대한 출연금도 매년 증가하면서 재정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671억원이었던 출연금은 올해 892억원으로, 3년 사이 200억원 이상이 증가했다.

이처럼 재정 부담이 커지고, 가용 자원 한계로 인해 국비 매칭사업 중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시비 1077억원 가량을 본 예산에 편성하지 못해 국비 매칭사업에 대한 차질도 우려된다.

하지만, 광주시는 본 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국비 매칭사업에 대해 내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에 시비 부담금을 대부분 편성해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내년 본 예산에 편성되지 못하고 내년 1차 추경에 편성될 주요 국비 매칭 사업은 아시아문화 공유 미디어아트 플랫폼 조성사업, 서부권 노인복지시설 건립, 효령노인타운 국민체육센터 건립, 아시아 예술정원 조성 등이다.

다만, 내년도 추경 자원 확보에도 어려움이 뒤따를 경우 지방채 추가 발행이나 금융기관 대출 등을 통해 예산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실은 검토 의견을 통해 "시는 세수여건 등을 감안해 필수경비를 제외하고 긴축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일부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시의회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광주시 출연 법인에 대한 출연금이 매년 증가하는 것은 만큼 법인들이 어려운 광주시의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해 긴급 운영과 예산절감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탄소복합재, '제2의 철강 산업' 육성 ▶2면

조규성·이강인 "4년 뒤 월드컵 우리가 주역" ▶18면



친환경 건축이 친환경 도시 만든다 ▶22면



6일 카타르 도하 974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 카타르 월드컵 16강전 대한민국과 브라질의 경기가 끝난 뒤 손흥민이 팬들에게 인사하며 경기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월드컵 16강 꿈 이뤄... 경제난·이태원 참사 등 힘겨운 국민에 위안

태극전사들의 행복한 반란이 16강에서 멈췄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이 6일 카타르 도하의 '974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 카타르 월드컵 16강전에서 브라질에 1-4로 크게 졌다.

전국민이 새벽잠을 설치며 8강의 기적을 염원했지만 벤투호가 FIFA 랭킹 1위 브라질을 넘어서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벤투호는 사상 두 번째 원정 월드컵 16강 목표를 달성, 이태원 참사와 코로나19로 힘겨워하는 국민들에게 큰 위안과 기쁨을 줬다.

16강 진출 가능성이 12분의 1에 불과하다는 예측에도 불구하고 그 목표를 이뤄냈다.

태극전사의 불굴의 경기력과 투지는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중꺾마)이라는 유행어까지 탄생

브라질에 막혀 도전 멈췄지만
손흥민 부상 투혼에 큰 감동
이강인·조규성·나상호 등
광주·전남 선수들 눈부신 활약
지역민들에 커다란 자부심

생시켰다. 안면 부상에도 그라운드에서 나선 손흥민과 김민재를 비롯한 선수들의 열정과 투혼은 국민들에게 벅찬 감동을 줬다. 광주·전남과 각별한 인연을 맺고 있는 '골든보이' 이강인과 광주대 출신 조규성의 눈부신 활약은 지역민들에게 자부심을 심어줬다. 금호고 출신 나상호·김태환도 16강 진출에 힘을 보탰다. 한국 축구는 벤투 감독과 월드컵 여정을 함께 하면서 키가 한뼘 이상 컸다.

2018년 지휘봉을 잡은 벤투가 대표팀에 이식하고 체계화한 '빌드업'(Build-up) 축구가 세계 무대에서 통한다는 것을 실전에서 입증했다. 이른바 패스워크를 바탕으로 공 점유율을 높이며 경기를 주도하는 전략이다. 태극전사들은 4년 동안 터득한 빌드업 축구가 월드컵에서도 경기를 주도하고 강팀과 당당히 맞섰다. 반면, 압도적인 개인 기량을 보유한 브라질 등 세계 랭킹 상위팀과는 다른 전략도 필요하다는 점도 체득했다. 때론 강팀을 만났을 때 뒷문을 걸어 잠그고 역습을 노리는 전략적 유연성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 축구는 계약 기간이 이번 월드컵까지이던 벤투 감독이 떠남에 따라 새 사령탑을 선임하고,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아컵 준비 체제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컵은 내년 말이나 2014년 1월께 카타르에서 열릴 예정이다. 새 감독을 맞이할 한국 축구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눈길이 쏠리고 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전남의 새로운 미래,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대한민국 기초과학과 첨단산업 발전의
새 지평을 열어 나가겠습니다.

레이저, 대한민국의 산업지도를 바꿉니다

반도체
· EUV광원, 미세가공

의료, 생명공학
· 소형 암 치료기

우주항공, 국방
· 특수 소재, 우주광통신

에너지
· 핵융합, 무선전력전송

초강력레이저연구시설은?
초고속력과 고에너지에 기반한 레이저를 활용하여 기초과학 연구를 수행하고 다양한 분야의 산업적 응용 기술을 개발하는 복합연구시설

전라남도
JeollaNamdo